

부처님들이 그대들 발꿈치 아래서 법륜을 굴리신다

양기사 ①



동아시아 선불교를 석권한 임제종의 주류가 된 양기사의 개창도량인 보통사(양기사)

평양에서 40km 남짓 되는 거리에 양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도로 사정으로 보아 또 다시 고생 좀 할 것 같다. 양기사(楊岐寺)로 가는 순례 일행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특히 수불 스님은 감개무량한 표정을 한동안 떨치지 못한다.

“양기 스님이 안 계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한국 조계종 신도인 순례 일행 모두가 양기사의 개법시조인 양기방회(楊岐方會) 선사의 후손이라는 말씀이다. 실제로 임제종 양기파의 개산조인 양기방회 선사는 중국 선종사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선종사를 석권한 특출한 선걸(禪傑)이다.

육조혜능 대사 이후 위양, 임제, 조동, 운문, 법안 종 등 5개 선종 종파는 송대에 이르러 임제종과 조동종만 남게 되는데, 임제종은 다시 석상조원 선사 문하에서 양기파와 황룡파로 나뉜다. 이를 5가 7종(五家七宗)이라 부르는 것이고, 황룡파는 황룡 해남 선사(1002-1069)부터 허암회창 선사까지 200여 년 동안 이어지다가 소멸되고 만다. 결국 양기파만 남아 임제종의 법통을 잇는데, 양기종은 송, 원, 명, 청 때까지 가장 융성한 종파가 되어 천하에 법을 떨치게 됐던 것이다.

양기방회 선사의 법손(法孫)으로는 <벽암록>의 저자 원오극근 선사가 4세손이고, 간화선을 제창한 대혜 종고 선사가 5세손이고, 원대의 고봉원묘 선사가 11세손이고, <산방야화>의 저자 중봉 명본 선사가 12세손이다. 양기나라는 양기방회 선사의 12세손인 석육공경 선사(1272-1352)로부터 태고보우 국사가 법맥을 받아와 오늘의 조계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양기산 양기사 가는 길도 첩첩산중이다. 양기산 이름부터가 신선유곡임을 드러내고 있다.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인 양자(일명 楊朱)가 지금 가고 있는 산중으로 들어섰다가 길을 잃고 기로(岐路)에서 헤맸다고 해서 양기산이 됐다고 한다. 당시에는 일세를 풍미하는 선사들이 걸어서 드나들었을 텐데, 그러나 순례 일행을 태운 버스가 당나귀처럼 뛰다 하고 해서 불편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수불 스님의 당부에 순례 일행 모두가 중국의 불편한 도로 사정을 재발심과 하심의 기회로 삼는다.

“조사 선사들이 정진했던 당송시대만 선의 황금기가 아니지요.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선사(禪師)를 편안하게 찾아 참배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도 선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그 당시 공부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분들보다 더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겁니다.”
방회 선사는 감서성 의촌 출신으로 속성은 방(冷) 씨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어린 시절 풍자를 잘하고 연극을 좋아했다고 한다. 선사는 20세가 되어 세금을 매기는 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가 서주(瑞州, 강서성) 구봉사에 갔다가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들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담주 도요산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다. 그는 자명초원(석상조원) 선사를 따라 남원사로 갔다.

방회는 남원사에서 자명 스님을 9년 간 시봉하면서 ‘작심마급(著什磨急)’이라는 선문답을 통해 크게 깨달았다. 작심마급을 우리말로 풀자면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정도일 터이다. 감사(監寺) 일을 보던 방회가 자명 선사에게 매번 물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였던 것이다.

“불법이 어떤 것입니까?”
“장고일(庫司事)이 번거로우니 가보게.”
“불법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는 훗날 자손이 천하에 퍼질 것인데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

매번 질문할 때마다 ‘어찌 그리 서두르는가’란 말만 들어온 방회는 자신이 공부한 바를 점검받고 싶었는데 마음은 점점 침통처럼 캄캄하고 답답했다. 방회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몽둥이를 들고 작심했다. 자명 선사가 다니는 길에서 숨어 있다가 선사를 진흙탕 길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고서는 말했다.

“오늘은 나에게 꼭 말하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리겠소!”
그때도 자명 선사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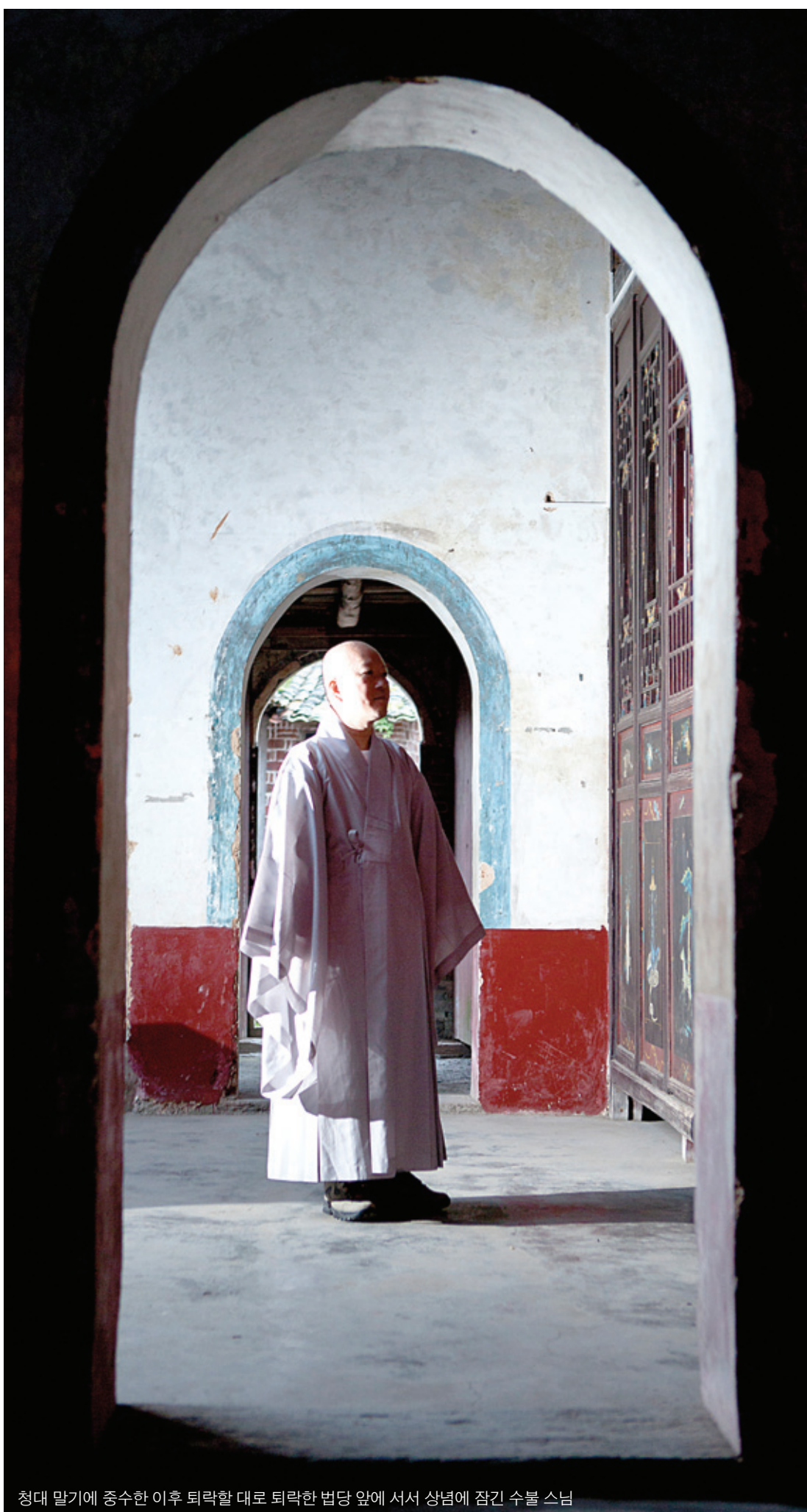
“감사도 이 일을 알겠지. 그만 두게.”
방회는 이 한 마디에 홀연히 깨달았다. 이 일어난 일대사(一大事)를 뜻했다. 방회는 바로 진흙길에 엎드려 절을 했다. 수불 스님은 이 선화의 배경에 대해서 행간의 숨은 사연까지 짚어가며 선해(禪解)를 해주신다.

“양기방회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속가에 있을 때 20세에 세리(稅吏)가 되었다고 하면 마을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님은 석상조원 선사, 자명 선사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보통사, 그러니까 양기사 가까운 곳에 남원사라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감사 소임을 보며 자명 선사를 9년 동안 모셨다고 그러합니다. 자명 선사가 양기 스님보다 다섯 살 많아요. 다섯 살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사형사제 정도라고 할 수 있지요. 자명 스님 문하의 황룡 해남 스님은 자명 선사보다 열다섯 살 적었고요.

비가 좀 오는 저녁에 자명 선사가 절 아래 마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스님이 9년간 자명 선사를 모시고 살면서 감사일을 맡았다고 그래요. 공부에 대한 어떤 깊은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명 선사는 스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이 부분에서 선어록의 행간을 잘 봐야 합니다. 사실은 자명 선사가 늘 가르쳐주었는데 스님이 또 다른 오해를 한 것이지요. 그날 저녁에는 스님이 몽둥이를 들고서 ‘오늘 내가 기어이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쳐 자명 스님을 자빠뜨렸어요. 자명 선사를 올라타고서 ‘이르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 후려치겠소!’ 하는 식으로 소리쳤어요. 그래도 자명 선사는 여유가 있는 분이라 마음대로 때리라는 표정으로 ‘감사도 이 일을 알고 있지 않는가’ 라고 태연하게 말했고, 스님은 이 한 마디에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깨달은 뒤에는 올라타던 입장에서 재빨리 벗어나 젖은 땅바닥에 오체투지하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한



청대 말기에 중수한 이후 퇴락할 대로 퇴락한 법당 앞에 서서 상념에 잠긴 수불 스님

자명 스님의 인내에 크게 감사드했다는 얘깁니다. 법을 물으면 ‘감사는 뭘 그렇게 급한가’ 라고 대꾸하면서 ‘감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뒤에 줄을 설 건데’ 하는 식의 소리만 하니 스님이 부화가 난가지요. 그래서 일을 저질렀는데 시절연인이 도래해 크게 눈 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명 선사와 방회 선사의 두서너 마디 선문답을 행간 속에 의미까지 낱알이 보여주는 수불 스님의 법문에 순례자 일행 모두가 이해하는 눈치다. 함장하며 미소를 짓는다. 수행도 아는 만큼 행복감을 느낀다고 봐야 한다. 행복감이 없는 무미건조한 수행은 지양해야 한다. 전말을 제시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수행은 최악일 것이다. 그리고 보니 안국선원

신도들의 중국 선찰순례는 독특한 정진이다. 고평한 선방 울타리를 벗어난 삶이 있는 정진이다.

외로운 소나무는 우뚝하고, 원숭이는 산을 내려가며 운다

방회는 깨치고 나서 자명 선사에게 물었다.
“좁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어찌해야 합니까?”
“물러서 있거라. 나는 간다.”

법에 집착하는 법집을 경계하면서 더 큰 공부의 인연을 지어가라는 의미일 것이다. 또 그 무렵에 이런 일도 있었다. 자명 선사는 공양을 마치고는 반드시 산행을 하였는데, 대중들이 도를 몰으려고 해도 대부분 있는 곳을 몰랐다. 방회는 자명 선사가 간 곳이 멀지 않음을 알고 북을 치고 대중을 모으니 자명 선사가 급히 돌아와 꾸짖었다.

“종림에서는 해가 저물고 나서는 범좌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는데 무엇에 의거해서 이러 규범을 만들었느냐?”

“예전에 분양 선소 선사(자명 스님의 스승)께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째서 규범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후 방회는 자명 선사가 흥화사(興化寺)로 옮기자 작별하고 물러나 구봉으로 돌아왔는데 도속들이 몰려와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다. 그때 구봉 근(勤) 장로가 방회를 모르고 말했다.

“방회 감사도 또한 선을 하는가.”

방회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모인 대중들에게 말했다.

“다시 질문할 자가 있는가. 나와 보거라. 오늘 나의 이름은 너희들 모든 사람의 손 안에 있으니 가로로 끌고 가든지 세로로 끌고 가든지 완전히 맡겨 두노라.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대장부는 반드시 대중들과 만나서 결백해야 하며, 땅 속의 물에서 조롱박을 만지는 것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대중과 만나서 감파하고자 시험해 보았는가. 만약 하지 않았다면 내가 손해를 본 것이다.”

마침내 방회 선사는 양기사 주지로 부임하여 개당설법을 하였다. 설법이 끝난 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양기산의 경계입니까?”

“외로운 소나무는 바위 가에서 우뚝하고 원숭이는 산을 내려가면서 운다.”

“무엇이 그 경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집 여자는 대바구니를 들고 가고 목동은 피리를 불면서 물을 향해 돌아간다.”

방회 선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안개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바람은 큰 들판에서 일어나 온갖 풀이 나뭇가 큰 사자후를 내어서 마하대만야를 연설하고 산세 모든 부처님이 그대들 발꿈치 아래서 법륜을 굴리다. 알아들었다면 공을 헛들이지 않았겠지만 몰랐다면 양기산의 산세가 험하다 말하지 말라.”

나는 이 설법이 주지 진산식 때 한 설법인지, 아니면 그 뒤에 한 설법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보는 순간 ‘이 설법은 그대로 시(詩)다!’ 라는 법법을 받았다. 논리를 뛰어넘어 인간내면을 노래하는 초현실주의 시가 벌써 1000년 전 양기산에 읊어졌다. 방회 선사의 시(詩)란 말씀(言)과 절(寺) 자의 결합이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순례 일행을 태운 버스가 양기사 밑에서 멈춘다. 수불 스님께서 양기산 수도봉(壽峯)을 바라보며 산길을 밟으시더니 한 마디 하신다.

“로리병 모양의 외풍수 형제로 보입니다. 사방이 막히어 한 번 들어왔다 하면 죽어서 나가든지, 살아서 나가려면 새처럼 훨훨 날아가든지, 가마타고 떠밀려 나가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무문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험한 곳에 깨달음을 위해 들어와 죽기를 각오하고 수행했을 양기파 옛 선사들의 치열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지금 우리들은 너무 쉽고 편하게 공부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기를 잘 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산길 초입에서 퇴락한 양기사 전각들을 보더니 눈물이 날 것 같으며 가사 장삼을 수하신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칙외선 “열침”의 효능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전달되어 원칙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철합,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 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 차분 * 오심, 구토,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약돌 (02)723-0099
 *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채영 * 입금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판매처 (조평자극건강센터, 오성신리, 오주배개동 지배동당)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롬비니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롬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여러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담배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롬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들의 마음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특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특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평무아 됩니다. 특경은 타고난 바리튼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특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효동선각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용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석학과 석사과정중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롬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롬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롬비니, 아답터, 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 문의전화 : 금강약돌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채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특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특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